

“이제 관심은 상임위원장”...각당 내부 경쟁 치열

여, 법사·안행·미래위 등 8자리 놓고 20명 각축

야, 예결위 3명 경합...유성엽 교문·장병완 산자 유력

여야가 9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 각 당에 배분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부 교투정리를 하느라 분주하다.

상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3선 의원이 전·후반기 2년씩 맡는 게 관례다. 3선이 없거나 말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선이 맡는 경우도 있다.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새누리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 길목을 관장하는 만큼 청와대는 물론 원내지도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법률가 출신 3선으로서 권성동·여상규·홍일표 의원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게 변수다.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의 경우 지방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권으로 “정무적 결정”을 내려 지명할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원장은 새누리당 3선 의원들

이 앞다퉈 가려는 자리다. 당내에선 유재중·이명수·이학재·조원진·황영철 의원이 자천타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안행위와 함께 내년 대선 국면에서 당의 ‘전략 상임위’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장의 경우 조원진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학용 의원과 4선이지만 19대에 재·보선으로 당선된 신상진 의원의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사수’에 성공한 기획재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각각 이종구·이해운 의원과 김성태·김용태·이진복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위원장은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김영우 의원을 먼저 꼽을 수 있으며, 일각에선 황영철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야당의 경우 19대에 30명에 달하던 3선 의원이 20대에는 23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소속 2명은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작다. 반대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은 8개에서 10개로 늘어 여당보다 자리다툼이 많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윤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정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번에 더민주로 넘어온 예결위원장의 경우 김현미·안민석·이준석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 배려로, 안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민의당에 넘어가면서, 이 의원은 호남 배려 차원에서 각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은 홍영표·인재근 의원이, 국토위원장은 안민석·조정식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은 이재근·전혜숙 의원이 각각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넘긴 외교통일위원장은 심재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누구나 가고 싶은 자리지

만 더민주의 경우 호남지역에서 완패한 관계로 도시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적임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비인기 상임위원 윤리위원장 역시 구인난을 겪고 있다.

3선 의원이 2명인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직도 2개를 가져와 여유가 있다.

전반기 교문위원장은 유성엽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장병완 의원이 유력하다. 상임위원장은 대체로 한 번만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재선급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예상된다. 하지만, 유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을 원했으나 교문위원장 자리가 오는 바람에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 3당 “조선 구조조정 책임자 처벌”

노동계 주관 토론회 참석...청문회 추진 등 공조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국민의당 박지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노동계가 주관한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 20대 국회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야3당 간 공조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비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 부실기업과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 부실이 만연하고 대규모 실업까지 오게 됐는지 대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연봉제 추진과정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불법도 따지겠다”면서 “집권당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원내 제1당이 만들어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싸우고 버티는 것이다. 더민주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관계자 처벌을 꼭 요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수민 의원 역대 리베이트 의혹에 국민의당 ‘발각’

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5명 고발...安 “조사 지켜볼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역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인 김수민·박선숙 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4·13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 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선거 홍보와 관련한 TF(태스크포스)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 의원 및 왕 부총장과 함께 논의해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해 허위로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하고 회계보고에도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선관위의 고발과 관련,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원내대표는 역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러한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독둑히 하며 제3당의 존재감을 살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사안은 진위 여부를 떠나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국민의당은 물론 안철수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김수민 의원은 친안(친 안철수)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느냐

도 관련이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당은 지지 기반 붕괴라는 현실에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회 개원과 함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



6·15 남북회담 16주년 기념식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호남 챙기기’

신정훈·김성주 전 의원 원내 호남특보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9일 4·13 총선에서 낙선한 전남의 신정훈, 전북의 김성주 전 의원을 ‘원내 호남특보’로 임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원내에서 호남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날”이라면서 “두 분을 호남특보로 지명, (호남지역과) 원내외의 소통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두 분은 현역의원 시절 의정활동과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로, 진정한 호남정치가 뭔지 보여 줄 것”이라며 “두 분이 호남과 더민주 간 소통의 가교가 될 것이며, 예산과 주요 현안에 있어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김성주 이에 신 전 의원은 “호남이 더민주의 이픈 손가락이 됐지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새로운 호남 정치 변화를 위한 더민주의 역할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호남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더민주와 지역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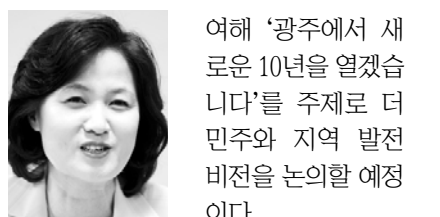
당권 도전 추미애, 12일 금남로서 ‘톡 콘서트’

당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야권 심장부 광주 민심 탐방에 나선다.

9일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추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야외무대에서 ‘추미애 톡 콘서트’를 연다.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당대회의 첫 걸음이라고 추 의원 측은 의미를 부여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더민주 표창원 의원과 양향자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도 참



여해 ‘광주에서 새로운 10년을 열겠습니다’를 주제로 더민주와 지역 발전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이날 콘서트에서 오는 8월 정당대회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당대표 도전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축 오픈

Self MG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